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과 생명 및 죽음에 대한 윤리의식간의 관계

서은주*, 차남현**

구미대학교 간호학과*, 안동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간호학과**

Relationships among Nursing Professional Values, Bioethics and Death Ethic Perception in Nursing Students

Eun-Joo Seo*, Nam-Hyun Cha**

Dept. of Nursing, Gumi University*

Dept. of Nursing, College of Natural Science, Andong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한국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생명 및 죽음윤리의식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편의추출에 의해 총 284명의 간호 대학생을 모집하였고 횡단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간호전문직관은 직업관($p<.001$), 윤리인식($p<.001$), 윤리적 가치관($p<.001$)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죽음윤리의식은 윤리교육 여부($p<.05$)와 윤리적 가치관($p<.05$)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전문직관과 생명 및 죽음윤리의식 간에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간호직업관에 유의한 예측변수는 죽음윤리인식으로 설명력은 15.0%이었다. 본 연구결과는 간호 학생의 간호전문직관, 생명 및 죽음윤리의식의 가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주제어 : 간호, 대학생, 전문직관, 생명윤리인식, 죽음윤리인식

Abstract This study identifies the relationships between professional values, bioethics and death ethic perception in Korean nursing students. The study included 284 nursing students. Data was obtained through convenient sampling, adopting a cross-sectional design methodology. Professional values among nurse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occupational view ($p<.001$), ethical perception ($p<.001$) and ethical values ($p<.001$). Death ethic perception was significantly different based on ethical education ($p<.05$) and ethical values($p<.05$). Positive correlations were found between nursing professional values, bioethics and death ethic perception, death ethic was significant predictors of professional values with an explanatory power of 15.0%. The findings of this study may assist in providing a detailed understanding of values among Korean nursing professionals, bioethics and death ethic perception.

Key Words : Nursing, Students, Professional Values, Bioethics, Death Ethic Perception

Received 27 January 2016, Revised 1 March 2016
Accepted 20 May 2016, Published 28 May 2016
Corresponding Author: Nam-Hyun Cha
(Andong National University)
Email: yeoreo@andong.ac.kr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는 환자의 질병치유와 건강유지, 증진을 위해 질 높은 간호를 실현하는 의료전문직이다. 따라서, 간호학생은 미래 간호사로서 전문직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지식 배양 교육과 병원현장 실제에 대한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한편, 간호사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백의의 천사라는 고정화된 이미지가 존재하고 있는데[1], 이런 이미지는 간호사들이 임상에서 업무를 행할 때 심리적, 기능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억압적인 환경으로 작용할 수 있고[2], 간호이미지와 상관관계가 있는 간호전문직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3]. 이런 환경 하에서 간호학생들은 자신과 자신의 미래 직업에 대한 체계적인 견해와 바람직한 간호전문성의 형성, 즉, 간호전문직에 대한 자아개념이 긍정적으로 형성되어야 하고 간호사가 되어서도 방황함이 없이 잘 유지해야 한다. 왜냐하면, 간호행위에 대한 동기와 포부를 결정하는 간호전문직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거나 부정적으로 확립되어 있으면 바람직한 간호상과 간호현상의 부재를 초래하는 근본 원인이 되며[4], 간호정체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간호 전문직을 올바로 수행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환자 및 관련 대상자들에게 질적인 간호를 제공하지 못하여 개인적 만족감이 떨어져 직업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하고 방황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간호의 미래를 주도할 간호학생들은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간호전문직관을 형성해야 자신과 직업에 대한 만족감을 가질 수 있고 이는 지속적인 직업 유지와 간호전문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임상에서 간호사들은 질병으로 외래를 방문하거나 입원하는 대상자들에게 가장 가까이 존재하는 의료진으로서 대상자들의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함께 하므로 간호전문직이 올바로 확립되어 있지 못한 간호사라면 환자의 생명과 죽음에 윤리적으로 부정적인 측면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윤리적인 문제는 의료진에게 있어 심리적인 긴장을 유발하는 원인으로[5] 윤리적 의사결정과 관련된 스트레스는 간호사들이 자주 접하는 심각한 문제이며 간호사의 경우 10점 만점에 6점으로 윤리적 딜레마 정도가 높다[6]. 왜냐하면, 잘못된 윤리의식적 판단은 의료진간 오해와 충돌을 유발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인해 도덕적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5]. 미래의 간호를 책임질 간호학생 또한, 간호전문직에 대한 올바른 확립은 윤리적 딜레마 수준을 낮추고 간호사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데 중요하다 생각한다. 예비 간호사의 정체성 확립의 바탕이 되는 간호전문직관이 긍정적이고 올바르게 형성된다면, 과학 발달과 생명의료기술의 변화로 간호현장에서 제기되는 생명과 죽음의 윤리적 문제를 포함해서 현실적 문제들을 잘 극복하고 환자의 안정화 및 질병의 완화, 더 나아가 삶의 질과 간호직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간호전문직과 생명의료윤리에 대한 선행연구는 일부 보고되고 있다[7,9]. 생명의료윤리의식은 Lee[10]가 개발한 도구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태아 생명권, 인공임신 중절, 인공수정, 태아진단, 신생아 생명권, 안락사, 장기이식, 뇌사, 인간생명공학으로 하부요인들이 구성되어 있어 하부영역들을 하나의 윤리적 가치관으로 보기에는 여러 분야의 문제들로 복잡되어 있어[11], 이타적인 영역(생명, 죽음)별로 구별해서 변수별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Choi[11]의 연구에서 안락사와 뇌사 등 죽음에 관한 하부요인이 다른 생명의료윤리의식 하부영역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제시하였듯이, 생명의료윤리는 죽음을 포함한 통합된 개념으로 보기에는 제한적이지 않나 싶어 죽음의료윤리를 생명의료윤리와 구별하여 의료윤리의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들의 생명과 죽음 중 어느 윤리의식에의 책임과 의무를 가지도록 하는 교육이 더 요구되는지 확인하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미래 간호사인 간호학생들의 생명 및 죽음 의료윤리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변화하는 생명의료윤리의식에 대처하고 긍정적인 전문직 자아개념과 간호상 형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학과에 다니는 간호 대학생들이 인지하는 자신의 간호전문직관에 따른 생명 및 죽음 의료윤리의식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간호전문직관이 간호 대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므로 예비 간호사로서의 윤리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간호대학생의 전문직관, 생명 및 윤리의식에 대한

정도를 파악한다.

- 2) 간호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문직관과 생명 및 죽음의료윤리의식과의 차이를 비교한다.
- 3) 간호 대학생의 전문직관과 생명 및 죽음 의료윤리의식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 4) 간호 대학생의 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이 지각한 자신의 간호에 대한 전문직관과 생명 및 죽음에 대한 윤리의식간의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고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2개의 시 소재 간호대학 2곳을 편의 선정하였다. 설문지 응답을 허락한 대상자에게 구조적 질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설문지 응답이 불완전한 것을 제외한 284명을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대상자에게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응답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회수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됨을 알려주고 연구 참여 동의서를 서면으로 받은 후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대상자의 수는 Cohen의 Power analysis 공식에 근거하여 유의수준(α)=.05, 회귀분석의 중간 효과크기인 .15, 검정력($1-\beta$)은 .80으로 선정하였을 때 필요한 표본의 크기는 270명으로 산출되었다. 본 연구대상자는 탈락률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 동의한 간호 대학생 300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수거하였으며, 이 중 설문지 응답이 불완전한 16명을 제외한(탈락률 5.3%) 총 284명(94.7%)을 자료를 분석하였다.

2.3 연구 도구

2.3.1 간호전문직관

Arthur[12]가 개발하고 Sohng과 Noh[13]가 번역, 수정하고 Song[9]이 다시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는 Sohng과 Noh[13]의 전문

직 실무, 만족감, 의사소통의 3가지 영역과 전문직의 속성을 참고하여[14] 윤리 영역이 첨가되었고 내용타당도와 구성타당도 검증을 마친 총 30문항으로 구성된 전문직 자아개념 측정도구를 이용하였다. 본 도구는 전문직 실무, 만족감, 윤리, 자기개발 및 리더쉽의 4가지 영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Likert 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4점으로 점수화 하였으며, 8, 18, 20번 3개의 문항은 역문항 처리하였다. 본 도구는 최저 30점부터 최고 12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사용한 도구의 내적신뢰도는 Arthur[12]는 Cronbach's α =.85이었고 Sohng과 Noh[13]는 Cronbach's α =.85, Song[9]은 Cronbach's α =.9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2 이었다.

2.3.2 생명에 대한 윤리의식

Lee[10]가 개발하고 Kwon[7]이 수정, 보완한 도구 49 문항 중 죽음과 관련된 윤리의식 문항인 태아생명권(5문항)과 신생아생명권(5문항) 총 10문항을 말한다.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찬성 4점, 대체로 찬성 3점, 대체로 반대 2점, 반대 1점으로 점수화하고 부정문항은 역처리하였으며 점수는 최저 10점에서 최고 4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인간생명을 존중하는 윤리 의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Kwon[7]의 연구에서 도구 신뢰도는 Cronbach's α =.7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75 이었다.

2.3.3 죽음에 대한 윤리의식

Lee[10]가 개발하고 Kwon[7]이 수정, 보완한 도구 49 문항 중 죽음과 관련된 윤리의식 문항인 인공임신중절(6문항), 안락사(5문항), 뇌사(5문항) 총 16문항을 말한다.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찬성 4점, 대체로 찬성 3점, 대체로 반대 2점, 반대 1점으로 점수화하고 부정문항은 역처리하였으며 점수는 최저 16점에서 최고 64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죽음에 대한 윤리 의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Kwon[7]의 연구에서 도구 신뢰도는 Cronbach's α =.7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76 이었다.

2.4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4년 7월부터 8월까지

하였으며, 자료수집은 연구자와 보조 연구자가 직접 기관을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보조원은 자료수집에 대한 프로토콜 교육을 받고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대상자는 스스로 설문지에 기록하되, 설문지 이해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질문 의도를 이해시킨 후 응답하게 하여 회수하였다. 설문지는 300부를 배부하여 회수된 설문지 중 무응답, 불성실한 응답을 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84부(94.7%)를 본 연구의 자료로 분석하였다.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Program 20.0을 이용하여 연구 목적과 측정변수의 특성에 따라 통계처리 하였으며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변수간의 차이검정은 χ^2 , t-test 와 ANOVA를 시행하였고, 유의한 효과에 대해서는 Tukey 사후검정으로 사후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변수간 관계를 검정하기 위해 피어슨상관관계(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이용하였고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연구 관련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0.7세이었으며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구분하여 본 학년은 1-2학년이 222명(78.2%), 고학년(3-4학년) 62명(21.8%)이었고, 종교는 있다 145명(51.1%), 없다 139명(48.9%)이었으며, 주관적 경제상태는 보통이 208명(73.2%)으로 대부분이었고, 직업관은 보장된 직업 178명(62.7%), 최고의 생업 83명(29.2%), 잠정적 직업 20명(7.0%), 간호직 이직의사 있음 3명(1.1%) 순으로 응답하였다. 윤리에 대한 인식도는 대부분이 보통 199명(70.0%), 잘 알고 있음 81명(28.5%), 모름 4명(1.5%)순이었으며, 윤리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받았다(88.7%)고 대답하였다. 윤리에 대한 가치관이 가끔 혼동된다 141명(49.8%), 매우 확고하다 73명(25.8%)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The General and Research related Characteristics (N=284)

Characteristics	Subcategories	n(%)
Grade	Lower grade(1-2)	222(78.2)
	High grade(3-4)	62(21.8)
Religion	Buddhism	61(21.5)
	Protestatism	60(21.1)
	Catholic	24(8.5)
	None	139(48.9)
Economic status	Live in affluence	29(10.2)
	Live in average	208(73.2)
	Live in bad	47(16.6)
Occupational view	Best occupation	83(29.2)
	Secure jobs	178(62.7)
	Temporary job	20(7.0)
	Job altitudes	3(1.1)
Ethical perception	Well-acquainted	81(28.5)
	Average	199(70.0)
	Unknowingness	4(1.5)
Ethic education	Yes	250(88.7)
	No	34(11.3)
Ethical values	Very firm	73(25.8)
	Intermittent confusion	141(49.8)
	Change of state of affairs	70(24.4)

3.2 대상자의 전문직관, 생명 및 죽음윤리의식의 정도

본 연구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 점수는 평균 96.20점으로 약간 중간점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고, 생명의료윤리의식 점수는 평균 30.98점, 죽음의료윤리의식 점수는 평균 46.44점으로 모두 중간점수 이상을 나타내었다<Table 2>.

<Table 2> Scores of Nursing Professionalism, Bioethic Perception and Perception of Death Ethics (N=284)

Variables	Range (score)	Mean	SD
Nursing professionalism	30 - 120	96.20	9.89
Bioethic perception	10 - 40	30.98	3.30
Perception of death ethics	16 - 64	46.44	3.97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전문직관, 생명 및 죽음의료윤리의식과의 차이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별 간호전문직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항목은 직업관(F=11.83, $p<.001$)과 윤리 인식도(F=9.55, $p<.001$), 윤리적 가치관(F=16.36, $p<.001$)이었고, 죽음의료윤리의식에 유의한 항목은 윤리교육 여

<Table 3> Differences in Nursing Professionalism, Bioethic Perception and Death Perception of the Subjects by Characteristics (N= 284)

Characteristics	Subcategories	Nursing professionalism		Bioethic perception		Perception of death ethics	
		Mean(SD)	t or F	Mean(SD)	t or F	Mean(SD)	t or F
Grade	Lower grade(1-2)	96.43(10.27)	.71	30.92(3.31)	-50	46.35(4.08)	-74
	High grade(3-4)	95.34(8.37)		31.16(3.32)		46.78(3.55)	
Religion	Buddhism	98.09(9.36)	1.52	31.28(3.08)	.43	47.03(3.39)	.59
	Protestantism	95.71(10.34)		31.17(3.50)		46.36(4.35)	
	Catholic	98.21(8.82)		30.96(3.09)		46.38(4.19)	
	None	95.21(10.09)		30.98(3.37)		46.22(4.02)	
Economic status	Live in affluence	99.27(10.57)	1.32	30.45(4.09)	.73	46.36(5.25)	.02
	Live in average	95.90(9.64)		31.12(3.24)		46.44(3.77)	
	Live in bad	96.28(10.91)		30.67(3.16)		46.32(4.14)	
Occupational view	Best occupation	101.09(10.57)ab	11.83***	31.11(3.24)	.08	46.90(4.37)	.91
	Secure jobs	94.24(8.64)a		30.94(3.29)		46.21(3.73)	
	Temporary job	94.56(9.76)		30.75(3.99)		46.85(4.52)	
	Job attitudes	83.67(10.69)b		31.00(2.00)		44.33(1.53)	
Ethical perception	Well-acquainted	100.70(10.50)ab	9.55***	31.37(3.10)	1.39	47.06(3.91)	.99
	Average	94.40(8.92)a		30.86(3.37)		46.21(4.00)	
	Unknowingness	86.00(12.49)b		29.67(4.04)		46.33(3.51)	
Ethic education	Yes	96.59(9.99)	1.92	31.08(3.25)	1.31	46.58(4.08)	2.02*
	No	93.14(8.87)		30.26(3.76)		45.42(2.84)	
Ethical values	Very firm	101.63(10.42)ab	16.36***	31.58(3.29)	2.16	47.43(4.07)a	4.09*
	Intermittent confusion	94.17(9.36)a		30.60(3.31)		45.83(3.98)b	
	Change of state of affairs	94.36(8.07)b		31.10(3.26)		46.73(3.65)	

*p<.05, **p<.01, ***p<.001

부(t=2.02, p<.05)와 윤리적 가치관(F=4.09, p<.05)이었으며 생명의료윤리의식에 유의한 항목은 없었다<Table 3>.

직업관이 최고의 생업이라고 생각하는 대상자가 보였던 직업이나 간호직에 대해 이직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보다 간호전문직관이 높았으며, 윤리적 인식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보통이나 모르고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보다 간호전문직관이 높았다. 또한, 윤리적 가치관은 확고하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가끔 혼동되거나 상황에 따라 변동된다는 대상자보다 간호전문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죽음의료윤리에 대한 인식은 윤리교육을 받은 대상자가 받지 않은 대상자보다 높았고, 윤리적 가치관이 확고한 대상자가 가끔 혼동되는 대상자보다 죽음의료윤리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4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 생명 및 죽음의료 윤리의식과의 상관관계

간호전문직관, 생명 및 죽음의료윤리의식의 상관계수 분석결과 모든 변인간 관련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은 생명의료윤리의식(r=.24, p<.001) 및 죽음의료윤리의식(r=.38, p<.001)은 양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생명의료윤리의식과

죽음의료윤리의식(r=.42, p<.001)간에도 양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4> Correlations among Subject's Nursing Professionalism, Bioethic Perception and Death Perception

Variables	Nursing professionalism	Bioethic perception	Perception of death ethics
Nursing professionalism	1		
Bioethic perception	.24***	1	
Perception of death ethics	.38***	.42***	1

***p<.001

3.5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하는 변인을 규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죽음의료윤리의식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형의 설명력 Adj R² 은 15.0%이었다<Table 5>.

독립변수에 대한 상관분석을 한 결과, 상관계수가 0.8 미만으로 나타나 모든 요인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회귀

<Table 5> Predictive Variables for Subject's Nursing Professionalism

Variables	B	S.E.	β	t	Adj R ²	F
Constant	47.44	7.16		6.63***	0.15	23.99***
Bioethic perception	.34	.19	.12	1.78		
Perception of death ethics	.82	.15	.36	5.32***		

***p<.001

분석의 가정을 검정한 결과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Durbin-Waston을 이용하여 오차의 자기 상관을 검정한 결과 1.827로 검정통계량(1.74)보다 크기 때문에 자기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다중공선성을 검정한 결과 Tolerance(공차한계)가 .82, VIF 값이 1.218 이므로 모든 변수는 다중공선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죽음의 윤리($\beta=.36, p<.001$)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결정계수(R^2)는 .15로 나타났다.

4. 고찰

간호 대학생은 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교육받고 있는 학생들로 올바른 간호전문직관과 환자 생명 및 죽음의 윤리에 대한 인식은 임상에서 환자간호는 물론, 훌륭한 간호사로 성장하는데 중요하다.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지각하는 간호전문직관과 생명 및 죽음의 윤리의식을 확인하고 그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며 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간호전문직관, 생명·의료윤리의식 및 죽음·의료윤리의식 정도를 확인한 결과, 모두 중간점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전문직관 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했을 때, 80.17점으로 나타나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Song[9]의 결과와는 비슷하였으나, 다른 선행연구[4, 14]의 연구결과 보다는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이는 간호사의 간호전문직관에 대해 연구한 선행연구[9, 15] 점수보다 높은 결과이다. 선행연구[9]에서 간호사 초기에는 간호학생 보다 간호현장의 현실적인 벽을 실감하기에 간호전문직 점수가 낮아진다고 보고되고 있듯이, 간호학생들이 긍정적인 전문직관을 유지하기 위한 전문적인 교

육과 실력수준 향상, 그리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환경적 지지가 요구된다. 생명·의료윤리의식 점수는 100점으로 환산했을 때, 77.45점이고 죽음·의료윤리의식 점수는 72.56점으로 생명·의료윤리의식 점수가 더 높았다. 생명·의료윤리의식 점수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일부 선행연구[11, 16] 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선행연구[11, 16, 17]에서 제시한 생명·의료윤리의식 중 가장 높은 영역이 신생아 생명권이고, 가장 낮은 것이 안락사나 뇌사처럼 죽음영역이었던 것은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는 생명에 대한 간호학생의 윤리적 관심이 높은 반면[18], 인간의 죽음은 하늘이 결정한다는 유교적 사교가 깊어 죽음에 대해 다루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죽음과 관련된 윤리의식이 낮은 것으로[17], 간호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죽음에 대한 윤리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 죽음·의료윤리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 대상자들의 간호에 대한 직업관은 간호직이 최고의 생업이라고 생각하는 대상자가 간호직이 보장된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대상자나 간호직을 이직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보다 간호전문직관이 높았으며, 윤리적 인식도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보통이나 모르고 있다는 대상자보다 간호전문직관이 높았다. 간호전문직관과 직업관은 비슷한 개념으로 간호전문직관이 가치관 중심이라면 직업관은 간호전문가가 되기 위한 모든 요소의 합[19]이다. 직업관이 높은 대상자는 학교 교육과 현장실습[20]을 통해 간호이미지와 가치관, 전공만족도[8] 등 전문성에 대한 가치관을 높게 형성하고 있으며 간호사가 자신에게 의미있는 직업이라고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업무수행, 직무만족, 직업지속성 및 재직의도를 향상시키는 유의한 변수이므로[21], 본 연구 대상자의 직업관으로 볼 때 미래 간호사로서 건전하고 올바른 전문직관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임상경험은 간호전문직을 수행하고 질적인 간호를 하는데 중요한

데도 불구하고, 간호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 벌써 이 직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은 인력적, 교육적, 시간적 측면에서 소실이 크다 하겠다.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간호학생들의 올바른 그리고 확고한 간호전문직관 형성을 위해 간호사 이미지와 전문직 자아개념이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14, 22], 임상에서는 전문직 지도자다운 사고 및 행동을 보여주는 역할모델을 개발하고 학교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발달시킬 수 있는 교육적인 지지 프로그램 체계가 요구된다. 또한, 간호 대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이 구축되도록 전문적인 지식, 가치, 그리고 기술에 대한 자아평가 지원이 요구된다[23].

윤리적 가치관은 확고하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가끔 혼동되거나 상황에 따라 변동된다는 대상자보다 간호전문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확고한 윤리적 가치관을 가진 대상자가 유의하게 생명의료윤리의식이 높게 나타났듯이[7], 간호전문직 형성에 윤리적 가치관 형성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간호전문직이 간호행위에 대한 동기과 포부를 결정하는 확고한 신념과 가치관인 만큼[4], 윤리적 가치관이 확고하게 형성되어 있으면 간호와 직업에 대한 체계화된 견해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간호학생들의 윤리적 가치관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죽음의료윤리에 대한 인식은 윤리교육을 받은 대상자가 받지 않은 대상자보다 높았고, 윤리적 가치관이 확고한 대상자가 가끔 혼동되는 대상자보다 죽음의료윤리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학생들의 죽음의료윤리에 대한 인식 향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윤리적 교육제공과 가치관 함양 교육이 필요하다 생각된다.

본 연구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은 생명 및 죽음의료윤리의식 간 양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호전문직관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죽음의료윤리였다. 이는 의료인들이 인간생명영역에서 많은 가치관의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으며[24], 간호사가 생명의료윤리의 쟁점에 대한 직업적 윤리가 확고하지 못하면 갈등을 가진다는 Son 과 Choi[25]의 연구를 지지하였다. 또한, 간호전문직관에 생명의료윤리의식보다는 죽음의료윤리의식이 영향변수인 것은 의료인의 생명의료인식이 높았다는 선행연구[5]처럼, 생명의료윤리는 선행의 원칙에 의거하여 환자의 이익을 위해 최선이 되는 판단[26]을 하지 만 우리나라의 유교적 가치관에 의해 생명의 종결을 인

정하는 것이 쉽지 않고, 죽음에 대해 다루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27], 죽음과 관련된 윤리의식이 생명의료윤리의식보다 더 이해와 교육이 필요한 영역임을 의미한다. 선행연구[24]에서 의료인들이 인간생명영역에서 많은 가치관의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생명의료윤리의 쟁점에 대한 간호사의 태도는 직업적 윤리가 확고하지 못하면 타인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데 갈등을 초래하여 도덕적 문제가 발생하며[28], 직무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에[30] 예비 간호사로서 죽음에 대한 판단, 생명경시 확산 가능성, 인간의 존엄성, 죽음에 대한 지연 등에 관한 윤리적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는 생명의료윤리 교육이 요구된다.

간호전문직관은 간호사의 업무수행, 직무만족, 직업지속성 등을 향상시키는 유의한 변수로[21] 간호 대상자에게 질적인 간호를 제공하는데 중요한 변수라 할 수 있다. 또한, Park 과 Park[31]이 보고한 바에 의하면, 자존감이 생명의료윤리 인식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고 가장 영향력있는 요인으로 제시하였듯이, 간호사로서의 정체감과 자존감이라고 할 수 있는 간호전문직관의 확립은 의료윤리와 생명의료윤리에 있어 필요하다. 따라서, 미래의 간호대학생들이 질적 간호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을 형성함은 간호 대학생 개인적으로는 직무 만족감과 자아존중감으로[22] 이어져 질적인 간호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간호의 가치 및 이미지 상승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중요하다.

5. 결론

본 연구 결과로, 간호전문직 형성에 생명 및 죽음의료윤리의식이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간호전문직에 죽음의료윤리가 미치는 영향이 의미있는 것으로 나타나 죽음의료윤리를 생명의료윤리에 포함시키는 것보다는 죽음이라는 이타적인 개념을 따로 구분하여 영향력과 비중도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기하는 바이다. 즉, 의료기술의 발달로 생명의료윤리에 대한 도덕적 판단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간호 대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 확립을 위해 간호학생들의 생명 및 죽음에 대한 윤리적 관행을 재검토함이 필요하며, 생명의료윤리의식에 대

한 교육과 간호 훈련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특히, 죽음에 대한 윤리적사고 판단과 의사결정능력, 윤리적 가치관을 확고히 할 수 있는 교육과정 및 중재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간호사가 되기 위해 진보된 생명 및 죽음의료윤리에 대한 교육적 준비가 예비 간호사들이 임상현장에서의 윤리적 의사결정 기술에 도움이 될 것이며 이는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역할 및 가치관 확립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생명의료윤리의 포괄적 개념 뿐 아니라, 본 연구처럼 생명과 죽음 등 구체적인 개념적 영역별 접근을 통한 연구가 다양한 대상자에게 적용하여 이루어질 것을 제안한다. 또한, 변별력 있는 개념 영역별로 구분하여 의료윤리에 대한 구체적인 양적, 질적 탐구를 할 것을 제안한다.

REFERENCES

- [1] M. Takase, E. Kershaw, & L. Burt, "Does public image of nurses matter?", *Journal of Professional Nursing*, Vol. 18, No. 4, pp196-205, 2002.
DOI: <http://dx.doi.org/10.1053/jpnu.2002.127014>
- [2] S. J. Roberts, "Nurses executives in the 1990s: empowered or oppressed nursing". *Nursing Administration Quarterly*, Vol. 22, No. 1, pp64-71, 1997.
DOI: <http://dx.doi.org/10.1097/0006216-199702210-00011>
- [3] M. K. Joo, & G. Y. Shin, "Nursing image and professionalism perceived by male and female nursing students in colleg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8, No. 3, pp510-521, 2012.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2.18.3.510>
- [4] Y. M. Kwon, & E. J. Yeun, "Correlation study on nursing professional values, department satisfaction, sociality, self-esteem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Vol. 13, No. 3, pp285-292, 2007.
- [5] K. Oberle, & D. Hughes, "Doctor's and nurses' perceptions of ethical problems in end-of-life decision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 33, No. 6, pp705-715, 2001.
DOI:<http://dx.doi.org/10.1046/j.1365-2648.2001.01710.x>
- [6] M. L. Raines, "Ethical decision making in nurses: relationships among moral reasoning, coping style, and ethics stress", *Journal of Nursing Administration's Healthcare Law, Ethics, and Regulation*, Vol. 2, No. 1, pp29-41, 2000.
DOI:<http://dx.doi.org/10.1097/00128488-200002010-00006>
- [7] S. J. Kwon, "A study on the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of the nursing students and medical students-focused on Daegu city and Gyeongsangbuk-do-",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2003.
- [8] J. A. Lee, "A study on the image of nurses and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Vol. 10, No. 3, pp325-334, 2004.
- [9] H. R. Song, "Comparative study of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caring perception in nurses and nursing students", Master's thesis, Eulji University, 2010.
- [10] Y. S. Lee, "A study of the ethical values of Korean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20, No. 2, pp249-269, 1990.
- [11] W. Y. Choi, "Awareness of biomedical ethics and attitudes regarding human tissue donation and transplantation of nursing students",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2011.
- [12] D. Arthur, "Measurement of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of nurses: developing a measurement instrument", *Nurse Education Today*, Vol. 15, No. 5, pp328-335. 1995.
DOI:[http://dx.doi.org/10.1016/s0260-6917\(95\)80004-2](http://dx.doi.org/10.1016/s0260-6917(95)80004-2)
- [13] K. Y. Sohng., & C. H. Noh, "An analytical study of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of hospital nurses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26, No. 1, pp94-106, 1996.
- [14] H. H. Cho, & N. H. Kim, "Relationships among nursing professionalism, nurse image, and core elements of nursing professionalism that nursing students perceiv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0, No. 4, pp548-557, 2014.

-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4.20.4.548>
- [15] Y. H. Chung, "Comparative study of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role conflict between new graduated nurse and experienced nurse in ICU", Master's thesis, Hanyang National University, 2007.
- [16] M. Y. Moon, & A H. Jaung, "Correlation between the nursing practice and consciousness biomedical ethic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Bioethics Association, Vol. 13, No. 2, pp49-62, 2012.
- [17] M. S. Kim, "Influence of moral sensitivity and ethical values on biomedical ethics awarenes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1, No. 3, pp382-392, 2015.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5.21.3.382>
- [18] H. Y. Jung, & K. I. Jung, "A study on the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of freshmen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s Management, Vol. 6, No. 4, pp37-48, 2012.
DOI: <http://dx.doi.org/10.12811/kshsm.2012.6.4.037>
- [19] Y. S. Lee, "An analysis of the core elements of nursing professionalism based on delphi technique",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2011.
- [20] H. S. Choi, "Professional nurses image perceived nursing students of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the Scientific Study of Subjectivity, Vol. 10, pp69-106, 2005.
- [21] K. J. Kwon, M. S. Chu, & J. A. Kim, "The impact of nursing professionalism on the nursing performance, job satisfaction and retention intention among clinical nurses",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Vol. 15, No. 2, pp182-19, 2009.
- [22] S. Karaoz, "Change in nursing students' perceptions of nursing during their education: the role of the introduction to nursing course in this change", Nurse Education Today, Vol. 24, No. 2, pp128-135, 2004.
DOI: <http://dx.doi.org/10.1016/j.nedt.2003.10.010>
- [23] B. Kelly,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of nursing undergraduate and their perceptions of influential forces",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Vol. 31, No. 3, pp121-125, 1992.
- [24] S. S. Park, "Ethical value on the medical practice of doctors and nurses", Journal of Kyungpook Nursing Science, Vol. 7, No. 1, pp51-71, 2003.
- [25] H. J. Son, & M. H. Choi, "A study of nurses' ethical conflict in caring for organ transplant patients", The Chung-Ang Journal of Nursing, Vol. 4, No. 2, pp1-24, 2000.
- [26] S. John, "Studies in history and philosophy of biological and biomedical sciences", Elsevier Science B. V., Amsterdam, Vol. 35, No. 1, pp177-184, 2004.
- [27] M. S. Kim, "Influence of moral sensitivity and ethical values on biomedical ethics awarenes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21, No. 3, pp382-392, 2015.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5.21.3.382>
- [28] H. J. Son, & M. H. Choi, "A study of nurses' ethical conflict in caring for organ transplant patients", The Chung-Ang Journal of Nursing, Vol. 4, No. 2, pp1-24, 2000
- [30] Mi-Jin Kim, Gyun-Young Kang, "The convergence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job stress and mental health of nurse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5, pp. 39-47, 2015.
- [31] So-Yeon Park, Kyoung-Young Park, "Correlation study of characteristics of bio-medical ethics and self-esteem for undergraduat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6, pp. 255-261, 2015.

서 은 주(Seo, Eun Joo)



- 1991년 2월 : 경희대학교 의대 간호학과(간호학학사)
- 1998년 2월 :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09년 2월 :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대학(간호학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구미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성인간호학
- E-Mail : eunju5180@hanmail.net

차 남 현(Cha, Nam Hyun)



- 1988년 2월 : 경희대학교 의대 간호학과(간호학학사)
- 1996년 2월 : 가톨릭대학교 산업보건간호학과(보건학석사)
- 2002년 2월 : 경희대학교 간호과학대학(간호학박사)
- 2012년 8월 ~ 2015년 1월 : 강원대학교, 보건과학대학 간호학과 교수
- 2005년 2월 ~ 현재 : 안동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지역사회간호학
- E-Mail : yeoreo@anu.ac.kr